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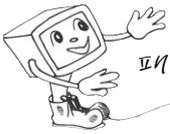
Wiki와의 조우

Wiki는 웹 상의 공동체 시스템입니다. 브라우저로부터 간단히 웹 페이지를 작성,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로부터 페이지로의 링크 작성도 간단합니다. Wiki는 대단히 유연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다양한 용도에서의 공동체에 이용되어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Wiki라는 시스템에 필자가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오피스의 정보 공유에 Wiki가 도입된 것이 계기입니다. 처음에는 이미 만들어진 콘텐츠를 이용하기만 했기 때문에 '뭔가 정보가 산만하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정보를 정리하면서 사용해가는 중에 점점 사용하기 편해지고, 그 정보를 정리하는데 있어서의 유연함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편리함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필자는 어느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컴퓨터의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업 과제로 Wiki를 사용한 정보 공유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도 포함된 정보 공유의 장이 확대되었으며, 눈 깜짝할 사이에 Wiki가 학내에서의 정보 공유의 중심지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예를 토대로 다음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Wiki 엔진을 만들기 위해



‘qwikWeb^{릭웹} **주1**’을 개발했습니다. 당시는 이미 다양한 Wiki 엔진이 보급되었지만, 기존의 것과는 차별화해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한 기능을 엄선해서 개발했습니다.

독자적인 Wiki를 제작하려고 하면 기존의 Wiki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래의 Wiki가 가지고 있던 특징이 무엇인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qwikWeb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과 Wiki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있는 논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같은 ‘Wiki’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도 논의가 맞물리지 않을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Wiki와 블로그 · 게시판의 차이

예를 들면 Wiki와 블로그의 차이입니다. 블로그는 웹 상에서 일기와 같은 형식의 글을 쓰기 위한 구성입니다. 브라우저로부터 웹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한 구성이라는 점에서 Wiki와 블로그는 공통된 점이 있으며, 자주 함께 이야기됩니다. 시스템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의 기능으로서 양자는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으면 ‘결국 Wiki도 블로그도 기능적으로는 거의 같다’라는 결론으로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개념으로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일까요?

우선 정보를 관리하는 ‘키key’의 차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블로그는 주로 날짜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에 반해 Wiki는 우선 제일 먼저 페이지 이름으로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것이 블로그와 Wiki의 근본적인 차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Wiki는 페이지 이름을 유연하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페이지 이름으로 날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주 1 <http://qwik.jp>



페이지 이름으로 사용하면 Wiki를 블로그처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Wiki를 블로그로 사용할 수 있다면, 블로그는 Wiki의 일종이라는 의미로 될까요? 논의 가운데에서 'Wiki는 블로그의 상위 개념이다. 즉, Wiki라는 개념은 블로그라는 개념을 포섭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조금 극단적인 주장처럼 들립니다. 만일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포섭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Wiki를 사용해서 게시판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면 Wiki는 게시판의 상위 개념이기도 한 것일까요? Wiki는 유연하고 확장성이 높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Wiki 엔진의 종류에 따라서는 블로그나 게시판을 간단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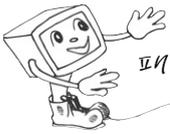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로그나 게시판을 개념으로서 포섭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Wiki라는 단어의 대상일까요?

기능의 차이만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기능의 차이가 아니라 사용법의 차이인 것이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블로그는 혼자서 쓰는 것이며, Wiki는 모두가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혼자서 사용하기 위해서 Wiki 사이트를 만들어 혼자 사용하고 있는 예도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하나의 블로그를 여러 명에서 써가는 사용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능이나 사용법의 차이에 주목해도 결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논의를 한데 모을 수 있을까요?

Wiki의 정확한 의미

결국 Wiki를 둘러싼 이와 같은 혼란은 'Wiki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Wiki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패턴, Wiki 그리고 XP

필자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브라우저 상에서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부 Wiki일까요? 방금 전의 주장처럼 Wiki는 블로그나 게시판도 포함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정의로서는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든 페이지를 누구라도 덮어쓰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으로서 블로그를 사용했다고 해도 편집 기능을 패스워드로 보호하지 않고 일반 공개방식을 취하면 누구라도 덮어쓰기 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덮어쓰기 가능한 상태로 하는 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 Wiki' 라고 하는 시스템의 이름에 'Wiki' 라고 붙이면 Wiki일까요? 물론 이름만으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름에 Wiki라고 붙이지 않아도 Wiki라고 하는 시스템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Wiki인 것일까요?

Wiki와 Wiki가 아닌 것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는 있을까요? 애당초 이 'Wiki' 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인터넷의 메일이나 게시판은 현실 세계의 메타포어(비유)를 인터넷 세계에 응용한 것입니다. 즉, 현실 세계에 대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Wiki에는 현실 세계에 대응하는 메타포어가 있을까요?

Wiki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이제까지 계속해온 'Wiki란 무엇인가?' 라는 논의는 단순한 논의를 위한 논의는 아닙니다. 스스로 Wiki를 만들어보려고 하거나 Wiki를 사용해서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기는 의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Wiki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Wiki를 도입한 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에 'Wiki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아도 'Wiki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메일이나 게시판은 현실 세계의 메타포어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알 수 있습니다. 메일인 경우에는 편지를 쓰는 것이 목적이고, 게시판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블로거라면 일기를 쓰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쓰는 내용은 둘째 치더라도 무엇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Wiki의 메타포어의 근원이 된 것은 무엇일까요? Wiki라는 시스템이 암묵적으로 상징하는 사용법이란 무엇일까요? Wiki를 도입한 직후에는 정보를 어떻게 추가해서 어떤 단위로 정보를 정리해 가면 좋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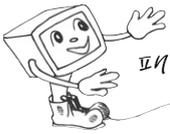
'Wiki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Wiki를 적절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Wiki 탄생의 배경을 찾는다

이제까지 본 것처럼 Wiki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정의가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집니다. 필자는 독자적인 Wiki를 구현해서 그 장점을 주장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논의의 전제 조건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그런 주장도 명확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어의 정의가 혼란된 상황을 해결하려면, 그 단어가 탄생한 배경으로 거슬러 올



라가서 어떤 경위로 그 단어가 탄생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단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자는 Wiki 탄생의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WikiWikiWeb

Wiki 탄생의 역사를 개관(概觀)해보겠습니다. Wiki는 워드 커닝엄(Ward Cunningham)이라는 프로그래머가 만들었습니다. 1995년, 그는 자신의 웹 사이트^{주2} 내의 하나의 콘텐츠로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역을 마련했습니다. 누구라도 쓸 수 있는 이런 구성에 붙여진 이름이 'WikiWikiWeb'입니다. 이용자로부터는 웹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WikiWikiWeb이라고 불리고 있어서 웹 사이트의 이름과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구성의 이름과는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 WikiWikiWeb이라는 구성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구성을 가지는 많은 웹 사이트들을 만들면서 이것들을 'Wiki 사이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가 활성화되면서 WikiWikiWeb이라는 이름은 'Wiki'라고 줄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HyperCard에 의한 패턴 브라우저

그럼 1995년의 WikiWikiWeb의 탄생을 Wiki의 기원일까요? 실은 커닝엄은 그 이전에 WikiWikiWeb과 같은 테마를 가진, 전신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1987년, 커닝엄은 'HyperCard'라는 시스템을 사용해서 매킨토시에서 작동하는 '패턴 브라우저(Pattern Browser)'라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패턴 브라우저는 '패턴'을 기술해서 열람하기 위한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

주 2 <http://c2.com>



고 이 패턴 브라우저를 인터넷에서 똑같이 작동하도록 한 것이 WikiWikiWeb입니다.

즉, WikiWikiWeb 또한 패턴을 기술해서 열람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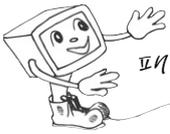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의 패턴

그건 그렇고, 패턴을 기술해서 열람한다고 했지만 이 '패턴'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패턴^{Pattern}이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구조나 설계를 재이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커닝엄은 프로그래밍에 관한 패턴을 수집하기 위한 틀로서 패턴 브라우저나 WikiWikiWeb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커닝엄은 무엇을 위해서 패턴에 주목했던 것일까요? 그는 프로그래밍에 패턴을 이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의 존재 방식을 크게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동료 사이에서만 패턴을 수집하고 있었지만, 점차 찬성하는 사람들도 늘어나 WikiWikiWeb을 이용해서 인터넷에서 널리 패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은 '디자인 패턴^{Design Pattern}'이라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패턴은 프로그래머 간의 공통 언어로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존재로 커졌습니다. 현재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패턴'이라고 하면 주로 디자인 패턴을 가리킵니다.

커닝엄과 함께 패턴에 힘을 쏟고 있던 켄트 벡^{Kent Beck}은 패턴을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전반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생겨난 것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eXtreme Programming, XP}'이라고 하는 개발방법론입니다. XP는 다양한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에 영향을 주어 프로그래머의 개발 환경을 크게 개선해왔습니다.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에 의한 패턴 랭귀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 패턴을 살펴보았지만, 이 패턴이라는 개념을 원래 생각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패턴을 모아서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것을 '패턴 랭귀지' Pattern Language' 라고 부르는데, 이 패턴 랭귀지는 건축가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Christopher Alexander가 생각해낸 건축 수법의 하나입니다. 알렉산더는 독특한 건축가이며, 건축이나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수법에 대한 사상가思想家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생동감 있는 건축'을 실현하는 수법의 하나로써 '패턴'을 토대로 건축을 설계하는 방법을 제창했습니다. 이것은 서적으로 정리되어 1977년 『A Pattern Language』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커닝엄은 건축 세계의 개념인 패턴 랭귀지에 흥미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전문 분야인 프로그래밍에 도입하려고 시험한 것입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건축 이야기가 나와서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Wiki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의 틀을 벗어나 패턴 랭귀지라고 하는 건축 세계의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Wiki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이 혼란스럽다거나 메타포어의 토대가 된 것을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와 같은 것에 이유가 있는 듯합니다. Wiki가 탄생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알렉산더가 만들어낸 패턴 랭귀지 등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패턴 랭귀지를 만들어낸 배경은 1964년에 출판된 서적 『Notes on the Synthesis of Form』 형태의 합성에 관한 노트에서 전개한 이론이 있습니다. 이 서적에서는 건축이나 도시 등을 설계한다고 하는 행위 그 자체를 수학적으로 형식화하는 것을 시험했습니다. 이 전개된 설계의 형식화라는 시험이 패턴 랭귀지라는 아이디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Wiki의 탄생을 쫓아가는 가운데 드디어 1964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제



부터 약 반세기 전의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긴 역사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건축, 소프트웨어 개발, Wiki의 역사를 찾는다

이후의 이 책은 제1부에서 제3부까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부는 각각 다른 영역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습니다.

제1부에서는 패턴 랭귀지라는 사상의 시초가 된 알렉산더의 활동을 순서대로 소개해줍니다.

제2부에서는 알렉산더의 사상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응용하려고 노력하고, 디자인 패턴이나 XP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제3부에서는 그런 흐름의 영향을 받아 Wiki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되어 갔는가를 소개합니다.